

19 장_함평민예총

나비야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오늘도 종선이는 물감으로 뒤범벅이 돼 있다. 교실 바닥에 펼쳐놓은 도화지 위에는 물감과 색연필, 온갖 잡동사니가 굴러다니고, 아이들은 아무렇게나 뿌려놓은 콩알처럼 도화지 위에서 꿈지락거린다.

물감을 흠뿌리는 아이는 종선이 뿐만은 아니다. 오늘 유난히 심술이 난 경식이기도 영 그림 그릴 생각은 않고 장난만 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은 아이들을 만류하거나 소리를 지를 생각이 없다. 아니 그럴 필요가 없다. 어쩌면 아이들의 이런 부산스러움이 이 미술수업의 목적이자 성과라고 할 수도 있을 테니. 이 북새통에서 두 시간 이상 시달리고 나면 온몸의 에너지가 바닥나 버리지만 오남석 선생님은 이 아이들과 함께 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을 정말 잘 한 일이라며 자랑한다.

선생님과 아이들의 인연은 4 월 어느날 저녁에 보도된 한 편의 뉴스에서 시작됐다. 4 월 12 일, 이 학교 학생들은 학교 버스로 현장학습을 다녀오다가 학교 진입도로에서 버스가 10 여 미터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버스 안에는 22 명의 학생과 20 여 명의 교직원이 타고 있었는데 모두 안전띠를 착용한데다 버스가 굴러 떨어지는 순간 본능적으로 학생들을 끌어안은 선생님들 덕분에 큰 화를 면할 수 있었다. 뉴스가 보도되면서 몸을 던진 이 특수학교 선생님들의 희생이 회자되었고, 사람들은

감동적인 뉴스라며 칭찬과 격려를 보냈다. 하지만 뉴스는 거기에서 끝날 뿐. 어쨌든 교통사고라는 불행을 당한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오랫동안 치료와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다. 큰 부상을 입은 선생님들이 많아 학교는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했다.

그 소식을 들은 선생님은 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로 했다. 전남 함평 영화학교 학생들을 위한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나비야 나비야’의 날갯짓은 그렇게 시작됐다.

꿈, 잠을 깨운다

정신지체와 자폐를 앓고 있는 12 명의 아이들 중에 그림을 그려 본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교과과정에 미술시간이 없기에 아이들은 미술을 경험할 수가 없었다.

글씨를 쓸 줄 아는 아이도 없었다. 겨우 이름 석자를 쓰는 아이가 몇 명 있을 뿐이었다. 아이들은 글씨를 쓸 줄 모르는 것은 물론이고, 이미지를 기호화 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하지만 선생님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 아이들의 잠자고 있는 발산 욕구와 미적 감각을 불러일으킬 자신이 있었다. 한달 동안 색연필 드로잉이 계속됐다. 색연필을 쥐는 것조차 어색한 아이들은 마음껏 원과 선을 그리는 일에도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았다. 낙서를 해댈 줄도 몰랐다. 오히려 넓은 도화지가 무색하게 손톱만한 글씨와 기호를 끄적이는 소심함을 드러냈다.

아이들에게는 도화지와 색연필이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그것들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막막하다는 표정으로 시간을 보내기 일쑤였다. 더욱이 프로그램 진행 중에 아이들이 발작을 일으키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러니 언제나

수업은 미완성으로 끝났다. 그러나 서두를 건 없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아이들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드로잉을 통해 막막한 두려움이 사라지자 아이들은 종이와 색연필과 물감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표현하기 시작했다. 포스터 컬러를 쓸 것인지 색연필을 쓸 것인지 선택을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표현하는 도구와 그리고자 하는 형태에 대한 이해가 싹트기 시작한 것이었다. 한 주, 두 주 시간이 흐르면서 검은색과 흰색만을 쓰던 아이들이 노란색을 선택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엔 파란색, 또 그 다음에는 빨간색 그리고 주홍색까지, 아이들의 그림에 하나씩 둘씩 색이 추가됐다.

아이들은 처음으로 내가 사는 집을 그리기도 했다. 아이들이 그린 집은 구체적이지 못했다. 꿈속의 집인 마냥 아리송했다. 글씨가 기호이듯 형태 역시 기호다. 기호는 상징성으로 보는 사람에게 개념을 이해 시켜야 한다. 그러나 아이들의 기호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기호의 이미지를 강요하거나 아이들의 표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아니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그들이 잠에서 깨어나듯 자신의 꿈을 표현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사는 집은 충분히 훌륭한 작품이기 때문이다.

정확한 것은 진실이 아니다

잠에서 깨어난 아이들은 나무에 대한 이미지를 그리기 시작했다. 이제 아이들에게는 표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 어떤 아이들은 나무를 그린 위에 이름을 쓰기도 했다. 이름은 아이들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기호다. 그것은 자아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며, 글씨를 쓸 줄 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그들 나름의 독특한 표현 양식이었다.

어떤 아이들은 물감을 쓰는 것은 물론, 콜라주 기법까지 이용해서 표현을 시도했다. 아이들의 적응력과 응용력은 놀랍게 향상돼 가고 있었다. 물론 그것이 작품의 완성도가 향상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아이들에게는 사물의 이미지를 조합하거나 종합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완성도와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아이들의 이미지는 아름답다.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정확한 그림만이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구도가 맞아 떨어지고, 조화와 균형을 이룬 작품만이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아이들의 그림은 충분히 아름다웠다. 표현할 통로를 찾지 못하고 묻혀있던 그들의 진심을 자유롭게 담아냈기 때문이다. 이 아이들의 그림을 대할 때는 마티스가 이야기한 ‘정확한 것만이 진실이 아니다’는 주장을 떠올려야 한다. 그런 자세로 이 아이들의 그림을 보고 있자면 어느새 이 명제는 자연스럽게 수정된다.

피카소의 ‘기타가 있는 정물’ 따라 그리기

아이들의 이미지 표현이 분주해지자 선생님은 아주 재미있는 시간을 준비했다. 아이들 앞에 피카소의 입체파 작품인 ‘기타가 있는 정물’을 꺼내놓고 피카소를 패러디 하도록 했다. 변형을 통해서 나름의 구성과 색채의 유희를 통한 재미를 느끼게 하자는 것이었다.

아이들이 만일 이 작품을 정확하게 따라 그린다면 그것은 기호를 파악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고, 나름대로 그린다면 그것은 재미있는 패러디가 될 것이다. 선생님의 예상대로 원형에 가깝게, 원형을 훼손시키지 않으려 애쓰는 소심함을 발휘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나름대로 그리는 아이들도 있었다.

니키 드 썬팔(Niki de Saint-phalle)의 ‘움직이는 조각’을 패러디 하는 작업도 시도했다. 그녀는 사물을 면도칼로 자른 다음 해체된 조각을 다시 꿰매 변형시켜 새로운 작품을 만들었던 신사실주의 화가였다. 선생님은 그녀의 이런 창작형태가 이 아이들과 천성적으로 잘 맞는다는 데 착안해서 이미지를 재해석하기 위한 훈련방법으로 패러디를 선택했다.

더 이상 아이들은 도화지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자신의 작품을 완성시키는 단계에 이르렀다. 일상에서 아이들은 장애인이었지만, 그림공방에 들어서면 아이들은 지극히 정상인 창작자가 되었다. 아무도 그들의 날갯짓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어느새 나비가 되어 훨훨 날아다니고 있었다.

커다란 그림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열자!

일련의 체계적인 수업을 통해 아이들은 이미지의 표현을 주저하지 않게 되었다. 아이들을 돌보겠다고 시작한 미술프로그램은 어느새 미술치유의 단계에 이르게 되었고, 선생님들은 내친 김에 커다란 이벤트를 기획했다.

각자가 그린 그림을 한데 모아 길게 이어 붙여 단체작품을 만들자는 계획이었다. 커다란 그림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열고, 열린 공간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활동하게 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이 대형작품은 무려 세로 1m 70cm, 가로 8m의 규모로 완성되었다.

나비야 나비야

아이들이 이미지를 구현하고, 대형작품이 완성됐다고 해서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몰입도 하지 못하고, 절제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절대

부족한 수의 강사들이 돌보기에는 역부족인지라 모든 아이가 충분히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는 점도 아쉬움으로 남았고, 수화를 비롯해서 의사소통을 할 능력이 없는 강사들로서는 의사소통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되었다.

수십만 평의 자운영 꽃밭에 수만 마리의 나비가 한꺼번에 날아오르는 장관이 펼쳐지듯 함평 영화학교 아이들은 자기들만의 축제를 성공적으로 끝마쳤다.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가녀린 날갯짓이 일으킨 작은 바람으로 보이겠지만,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폭풍이 되어 ‘나비효과’를 일으켰다. 그것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아니었다면 결코 꿈꾸지 못할 아름다운 변화였다.

전남 함평 영화학교 장애학생을 위한 미술교육프로그램, ‘나비야 나비야’

함평 나비고을예술인촌